

# 협동조합의 사상과 실천

장 원 석

단국대학교수  
농업경제학 박사

우리 양계업자의 궁극적 소망은 무엇일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리라. 등 따시고 배부르려면 돈을 잘벌어야 할 것이고, 사람답게 살려면 인간성이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풍요와 인간적 가치실현. 이 명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변함없이 추구해온 일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사정은 이와는 정반대의 구릉으로 전락되는 듯하다.

사료값 자재대는 오르고 계란값 닭값은 불안정하니

돈벌이가 점점 어려워져 간다. 1인당 GNP가 100불도 안되던 시절엔 가난할망정 혼 혼한 정이 흘렀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경쟁과 투쟁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적대 관계로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모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은 독과점화로 이행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경제구조도 예외가 아니다. 양계업자는 다수이나 오히려 수소인 중간상인에게 힘이 있으니 계란값과 닭값의 결정이 그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고, 사료회사와 자재생산회사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의

독과점 기업들이다.

여기서 우리 영세·다수의 양계업자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경쟁"은 강자의 논리이고, "자본"의 속성은 냉혹한 것이다. 따라서 약자인 우리가 냉혹한 자본의 논리에 살아남기 위해 "협동" "단결"하여 "공동체"적 해결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웃 양계업자를 경쟁대상으로 보지 말고, 공동운명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난 여름 필자가 직접 조사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경남 양산에서 경주 불국사 옆동리까지 60km에 이르는 구룡지에는 82개 체관계 협업농장이 산재하여 있다. 1개 협업농장은 3~4인의 공동출자로 시설하여 자본을 갖고 있으며, 82개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의 수는 성계가 70만수, 육성계가 30만수 정도이다. 따라서 하루 평균 35만개의 계란을 공급, 부산지역 계란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5%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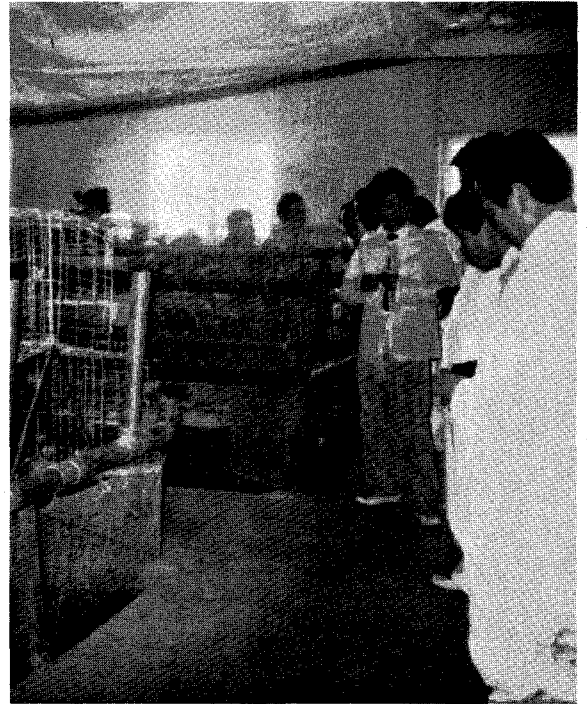
이곳에서의 계란가격은 서울 대구 광주 등지보다 개당 1원50전 내지 4원정도 높게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동"의 힘이다. 즉 외지에서의 중간상인이 부산지역에 침투하면, 협업농장에서는 생산비보다 훨씬 짤 가격으로 공급을 하여, 외지상인의 침투를 불가능하게 한 후 가격을 올려 받는다.

이들은 또한 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소매상에 공급하기 때문에 공판단계의 마진이 이들의 몫으로 떨어진다.

사료도 공동구입하고 약품도 공동구입한다. 지하수를 파는 등 시설 설비는 3~4명이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500만원 내지 1천만원의 소자본으로 최신 시설을 갖춘 농장을 마련할 수 있다. 82개 농장의 협동화를 이룩한 장본인은 김중경씨로서, 지난 17년동안 판로·신용·사육 기술 등 각고의 결실을 다른 모든 양계업자에게 나누어 준 셈이다.

일반농장은 대개 1만수에서 3만수규모인데, 그 자신을 포함한 5형제와 사위의 공동농장인 오경(五經)협업농장은 12만수 규모이며, 사무실운영 및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다.

또다른 협업농장의 예는 산안농장을 들 수 있다.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에 위치한 이 농장은 소유·생산으로



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7개가구가 공동으로 하며, 유정란을 개당 100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서울에만도 1천여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가구수가 7가구라고 필자가 이야기 했지만, 그들 자신은 가구개념이 없이 30명 모두가 한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세속의 보통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높은 철학적 사고와 실천을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별천지도 있나 할 정도로 그들의 세계는 독특하며, 운동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반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60년대 이후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경쟁만이 미덕으로 착각하게 된 오늘! 잘산다는 것이 이웃부터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며 무정냉혹한 돈의 논리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늘의 현실. 돈과 사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가? 돈벌이를 위해 서라도 같은 양계업자끼리 경쟁해야 하는가, 아니면 협동하여 중간상과 독과점기업의 횡포를 공동으로 막아야 할 것인가? 경제적 풍요와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회복은 공동체적 삶,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신년을 맞이하여 협동조합의 사상과 실천이 무엇인가를 재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